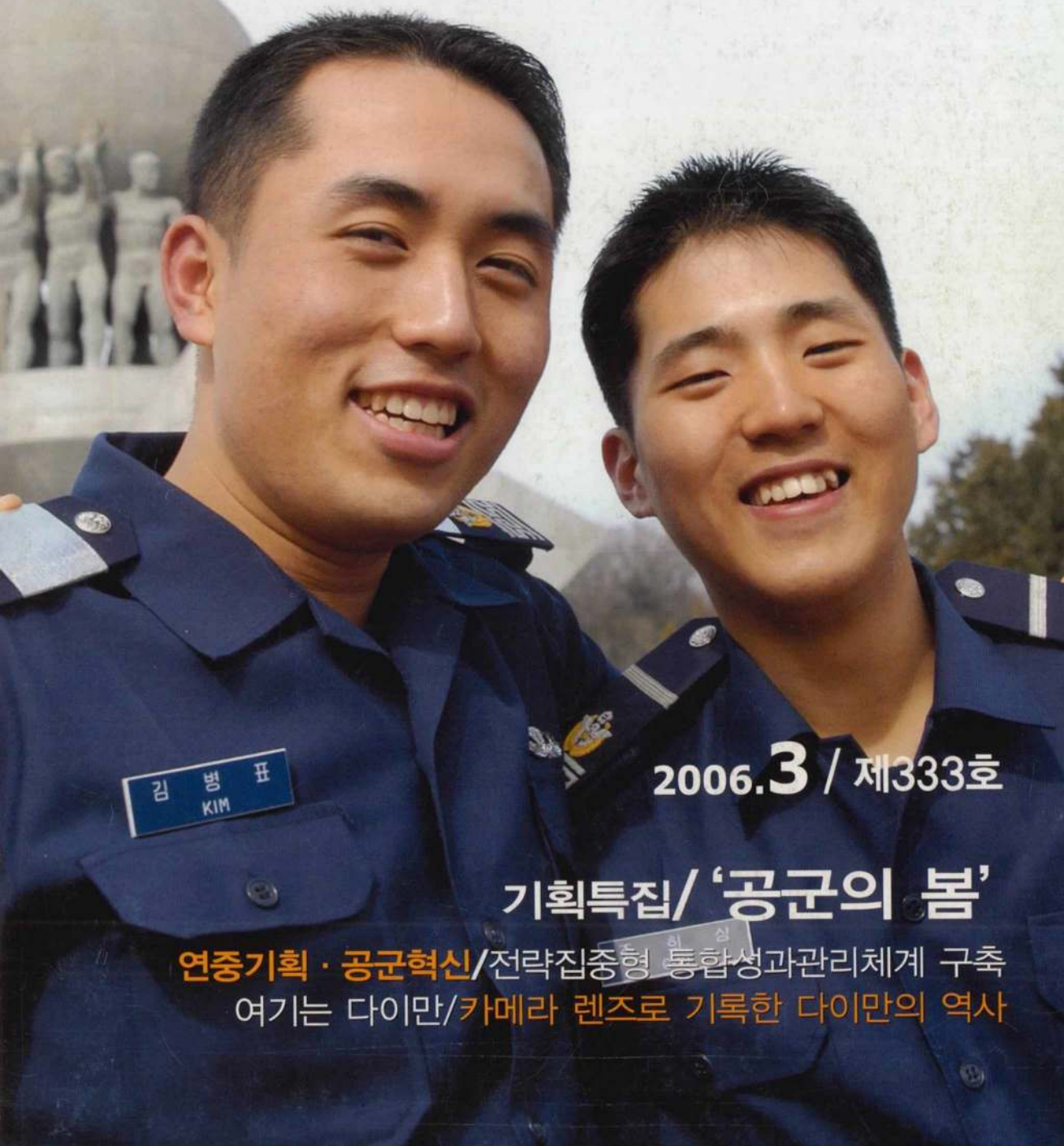


간 등 록 번 호

08-1600006-000001-06

# 공군

www.airforce.mil.kr



2006.3 / 제333호

기획특집 / '공군의 봄'

연중기획 · 공군혁신 / 전략집중형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여기는 다이만 / 카메라 렌즈로 기록한 다이만의 역사

# 공군

## MONTHLY AIRFORCE

### Contents

March 2006 No.333



새 봄, '입교식'과 '졸업식'을 통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左 졸업생 김병표 생도, 右 1학년 조희상 생도)

**2** 참모총장 스케치

**4** 공군은 지금

**8** 연중기획 - 공군혁신

전략집중형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10** 기획특집 - '공군의 봄'

비행단에 찾아온 봄소식  
사관생도들의 봄, 새로운 비상!  
30단 장병들의 봄  
봄철 피부관리법

**17** 현장 속 현장

「2006년 방공포병 종합전술훈련」 현장을 가다!

**20** 화제의 공군인

전문지식에 날개 달아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美대학원생 상위 1% 현인하 소령과 만학도 진성춘 원사

**22** 여기는 다이만

카메라 렌즈로 기록한 다이만의 역사  
(특집화보) 카메라 렌즈에 담은 다이만



연중기획 - 공군혁신



기획특집 - '공군의 봄'



현장 속 현장  
- 「2006년 방공포병 종합전술훈련」 현장을 가다!

22



여기는 다이만  
- 카메라 렌즈로 기록한 다이만의 역사

32



우리의 항공기  
- 국내 독자개발 첫 항공기 KT-1 '웅비'

34



우표로 보는 전쟁사  
- 무용지몰이 되어 버린 마지노선

37



동아리 열전  
- 제8546부대 마라톤 동아리를 찾아

46



테마가 있는 나들이  
- 연인들의 성지, 베로나와 피렌체

## 29 I Love Air Force

남편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 밥상'

## 32 우리의 항공기

국내 독자개발 첫 항공기 KT-1 '웅비'

## 34 우표로 보는 전쟁사

무용지몰이 되어 버린 마지노선

## 37 동아리 열전

제8546부대 마라톤 동아리를 찾아

## 40 생각하는 그림

가장 지혜로운 한마디

## 42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쉿! 비밀에 관한 영어 표현들

## 44 마음으로 읽는 글

편지 그리고 우체통

## 46 테마가 있는 나들이 - 이탈리아 여행기 2편

연인들의 성지, 베로나와 피렌체

## 50 건강 365

커피와 건강

## 52 공군 글마당

에너지 절약,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단장님의 껌

## 56 책마을

박완서의 「잃어버린 여행가방」

## 57 기상전망대

만물이 약동하는 3월에



# 참모총장

# 스 케 치



## 참모총장과 공사 생도와의 만남

참모총장은 2월 1일 공군본부에서 공군사관 학교 제54기 생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책임, 청렴, 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공군이 요구하는 올바른 직업군인의 길을 당부했다.

## 참모총장, 「고등비행 수료식」 주관

참모총장은 2월 2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05년도 3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주관하고, 신임조종사들을 격려했다.



### 「'05년도 공군 안전우수부대 시상식」 주관

2월 21일,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참모총장 주관으로 「'05년도 공군 안전우수부대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19전비가 공군 안전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었으며, 제159 전투비행대대가 공군 안전 최우수 대대의 영예를 안았다.



### 「공군장성 혁신 大토론회」 주관

2월 24일 공군본부에서는 참모총장 주관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정예공군 육성' 및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군장성 혁신 大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배창식 공군작전사령관은 2월 17일, 제11전투비행단에서 우리 공군의 최신예 주력기인 F-15K의 전투 수행 능력을 입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첫 지휘비행을 했다.



교육사령부는 2월 17일, 훈련병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속을 위해 희망하는 훈련병과 부모들에게 배속 전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R.O.K. Air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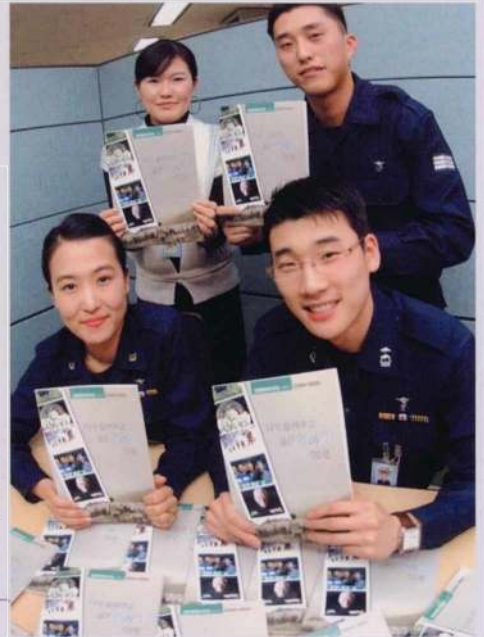


학생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는 2월 1일 국군 창설 이래 단일 비행대대 최고기록인 「1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월 22일, 생도 '권투 교실'에 국제 여자 프로복싱협회(IFBC) 세계챔피언 플라이급 최신희·미니멈급 손초롱을 일일 코치로 초빙, 실전 스파링을 가졌다.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일일병영교육 교안' 450여 편 중 70편을 엄선하여 「다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70선」을 발간했다.





2월 2일 제16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고등비행수료식에서 박인철 중위(공사 52기)는 아버지인故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의 뒤를 이어 전투 조종사가 됐다.故 박명렬 소령은 '84년 3월, 주기종인 F-4E로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2월 3일,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한국항공소년단 단원들과 관계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항공소년단 Winter Air Camp」가 열렸다.

제8전투비행단 기상대대는 군 최초로 기상상황 전달에 '음성동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R.O.K. Air Force



제17전투비행단 여군부사관과 장병 20여 명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청주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성화원을 찾아 원아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제3훈련비행단 야전정비대대는 2월 18일, 대대 병사 전원이 강당에 모여 전역 병사 600기 10명의 '병영생활 졸업식'을 열었다.



제18전투비행단 위관장교들은 2월 2일, 부대인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대청소, 고장난 시설물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 전략집중형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혁신관리과 소령 **홍준표**

**기본교리를 바로 알고,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혁신공군'을 이룩하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공군조직은 어떤 모습 일까? 아마도 조직원 모두의 불평과 불만이 매우 적으면서도 추구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소위 '건강한 조직'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공군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조직 내에서 공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일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이다.

우리는 '혁신'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공군인이라면 당연한 공군의 목표와 지표, 참모총장님의 지휘지표와 방침을 정확히 숙지하는 데서 '혁신'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서는 무엇일까? 바로 「공군기본교리」이다. 공군기본교리를 바로 알고 '공군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 원리와 원칙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공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 '한 방향 한 목소리'로 혁신공군의 정체성을 찾자

대통령님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서신을 통해 '혁신 대한민국(Innovation Korea)을 세계 일류 브랜드로'라는 기치

하에 좀더 많은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혁신 인프라와 혁신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은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인가? 총장님께서는 1월 1일, 지휘서신 1호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군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하셨다.

혁신의 성패는 'CEO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공군의 CEO인 참모총장님의 의지는 물론, 공군본부에 '혁신관리과'까지 새로이 구성되었으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다. 남은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군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 혁신을 통해 나와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자

'나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제일 먼저 주인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를 가치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훌륭한 상품이 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할 때 비로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군조직을 살펴보자.

우리의 강점은 지휘체계의 구조화로 추진력이 우수하여 지휘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특기와 분야간에 인화단결이 어렵고, 평가위주의 교육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하며,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조직의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추진에 있어 위기는 곧 기회를 의미한다.

특히, 지금은 정부와 국방부 및 공군의 강력한 혁신의지가 있으며, 국방개혁 2020 등 3군 균형발전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조직의 가치'를 구현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 혁신공군이 나아갈 방향

혁신은 상위 부서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공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부대의 특성에 맞는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향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도적인 혁신마인드이다.

이를 위해 군 내부적으로는 추진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분야간 연계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군 외 부적으로는 정부의 혁신의지와 국방개혁 2020을 공군발전의 전기로 활용하여 범공군적으로 한 방향 한 목소리를 내어 정책홍보활동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전쟁 양상과 합동전장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항공력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공중과 우주,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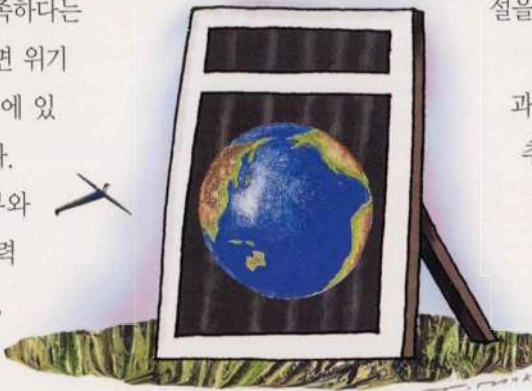
공군의 비전인 「항공우주군」 건설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 공군인의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혁신 추진 과정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지식관리'를 심화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개인과 부서 및 분야의 유·무형

자산을 공군비전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집중형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과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공군 내의 명확한 핵심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정예 공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다음 호부터는 임무에는 강하고, 매력 있는, 신바람나는 공군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공군에서 추진 중인 구체적인 혁신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④



공

군

의

봄

비행단에 찾아온 봄소식

사관생도들의 봄, 새로운 비상!

30단 장병들의 봄

봄철 피부관리법

봄이 오는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르는 F-15K

# 비행단에 찾아온 봄소식

제11전투비행단 대위 정현철  
교육사령부 중위 장재성

○ 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가고... 이제 산들산들, 파릇파릇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다렸던 만큼 더욱 반가운 봄소식. 3월, 비행단은 봄을 맞을 준비로 한창 바쁘다. 파스해진 날씨만큼이나 분주해진 손길들. 봄을 준비하는 비행단을 살짝 엿보았다.



1. 봄의 급격한 온도변화는 항공기의 연료가 새는 등 결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연료공급장치의 패키징을 점검하고 있는 정비사
2. '혹한'이라는 말이 딱 맞았던 지난 겨울.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보급대대의 유류중대 장병들은 유난히 바빴다. 봄을 맞아 기름이 들어 있던 드럼통들을 정리하는 장병들
3. 아무래도 봄을 가장 반기는 것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1년 365일 '외근'의 헌병대대 장병들일 것이다. 겨울을 함께한 두꺼운 방한복을 정리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가벼워진 몸만큼이나 기분도 날아갈 듯...
4. 수송대대의 봄맞이 차량 점검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눈이 많이 왔던 지난 겨울,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 준 고마운 체인을 정성껏 손보는 수송대대 장병들



5.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는 기본. 두꺼운 솜이불과 모포도 새로 털고 따스한 봄볕에 이불도 바싹 말린다. 보송보송 봄 내음이 묻어나는 이불을 덮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6. '겨울의 동반자' 야전상의 내피(일명 깔깔이)도 이전 깨끗이 목욕을 하고 관물함으로 향한다. 군화들도 따사로운 봄볕아래 오랜만에 숨을 쉰다.



# 봄철

## 공군 장병들의 별미

### 봄나물 요리를 배워 보아요!

제3훈련비행단 대위(진) 김성경



**다**른 공군 부대보다 조금 일찍 봄을 맞는 남쪽나라의 제3훈련비행단 식탁에는 벌써 상큼한 봄나물이 등장했다.

3월 초, 부대 내 위치한 '토성회관'의 점심상에는 달래, 냉이, 머구(머위의 경상도 방언), 봄 시금치 등의 봄나물이 한 상 가득 올라 장병들을 황홀하게 했다.

'봄을 타서' 입맛이 별로라는 그대를 위해, 3훈비 장병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토성회관 조리사님께 초간편 웰빙 달래나물 무침 조리법을 배워보았다.

#### <토성회관 이삼자 조리사님의 달래나물 무침 강좌>

- 준비물 : 달래나물(1kg), 고춧가루 20g(한 국자), 고추장 30g(반 국자), 참기름 10g(두 스푼), 깨소금 10g(두 스푼), 식초 10g(두 스푼), 설탕 10g(두 스푼), 풋고추(홍초, 청초 합쳐서 5개가량), 들깨가루 10g(두 스푼)

- ① 달래를 깨끗이 씻어 정리(손이 좀 가더라도 깨끗하게!)
- ② 준비물을 양념 그릇에 넣고 잘 섞어 양념제조(참기름, 식초, 들깨가루는 나중에)
- ③ 완성된 양념을 달래에 넣고, 참기름과 들깨가루, 식초를 넣는다.  
(식초와 설탕은 비슷한 양을 넣어야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 ④ 마무리는 손맛으로
- ⑤ 간을 보고
- ⑥ 짜진! 달래 무침 완성!



①



②



③



④



⑤



⑥

“ 모두 먹음직스럽게 담아서... 이제 먹는 일만 남았다.  
그냥도 먹고, 비벼서도 먹고... 웰빙 봄나물. 역시 맛있다. ”



# 사관생도들의 봄, 새로운 비상!

공군사관학교 대위 김 세 현

새 봄, '입교식'과 '졸업식'을 통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이제 막 공군인이 된 1학년 생도와 공군 장교로서 새로운 날개를 펼치게 될 졸업 생도의 활기 넘치는 각오를 들어보았다.



사관학교 1학년 **조희상** 생도



사관학교 졸업생 **김병표** 생도

**얼**마 전, 5주간의 가입교 훈련을 거쳐 난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가 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신분이 바뀌었고, 생활이 달라졌다. 생각도 마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난, 나의 이러한 변화가 자랑스럽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든 호흡을 참고 삼킬 때마다 꿈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확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난 공군사관학교 1학년, 신입생도로의 새 생활을 시작한다. 나의 꿈과 도전이 펼쳐질 이곳 성무 언덕, 뜨겁게 뛰는 가슴으로 새 봄을 맞는다.

**드**디어 어깨 위에 은빛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았다. 4년간의 생도생활이 기쁨 반, 아쉬움 반, 복잡한 심사를 타고 머리 속을 흘러간다.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아쉬웠던 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 속에 장교를 향한 나의 시간들이 지나갔다.

2006년 3월. 이제 난 그토록 꿈꾸던 장교가 되어 나의 임지로 떠난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내야 할텐데.' 무거워진 어깨만큼 두 다리에 힘을 싣는다. 장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올 봄, 힘차게 달려보자!



# 30단 장병들의 봄

제30방공관제단 중위(진) 윤재두

## 제주도 '나 봄날' 상병의 일기...

3월 △일 수요일 맑음

오늘은 베이스 초소 아 침근무를 섰다. 초소로 가는 길에 노란 꽃을 봤다. 유

채꽃인가? 연 병장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심어놓은 깡깡나무에도 열매가



하나, 둘 달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초소에 설치되었던 온열기도 철거한 지 좀 된 것 같고 방한복도 언제부터인지 입지 않는다. 바람만 빼면 정말 봄이다.

하긴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눈이 몇 번 오긴 했지만 그치자마자 녹아버리곤 했다. 다른 사이트들은 눈 치우느라고 난리라던데...

유난히 파사로웠던 햇살 속에서 아침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체련을 했다. 나는 반팔에 긴바지를 입고 농구를 했는데 하체련복 반바지를 입고 나온 애들도 몇 명 있었다.

12월까지 밤에 모기가 한 마리씩 날아다니곤 했다. 이제 3월이니 다시 모기들이 나오겠지? 두렵다.

## 강원도 '계 속눈' 일병의 일기...

3월 △일 수요일 눈

어제부터 계속 눈이다. 무릎을 넘어 이제는 허벅지까지 빠질 것 같다. 3월인데 그만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여름이었는데도 쌀렁했다. 안개 같이 뿌연 구름이 눈 앞에 있고..., 1,400미터가 넘는 고지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첫 겨울... 정말 길다. 알프스에 온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작전도로 제설작업을 시작해서 일과가 다 할 때까지 치워도 끝이 없다. 그래도 열심히 치우다보면 춥지는 않아서 좋다. 바람은 또 왜 이리 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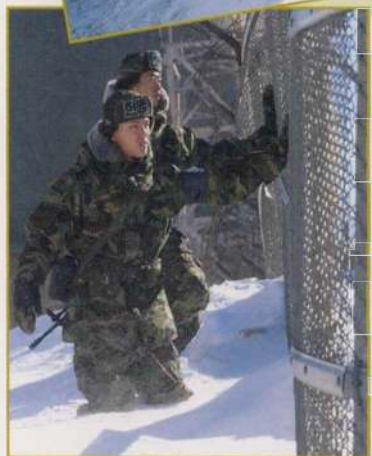
무장상태도 거의 완벽에 가깝다. 내복, 전투복, 방한복, 장갑, 털모자까지 챙겨 입고 나면 움직이기 불

편할 정도다. 그래도 춥다.

오늘은 수요일. 체련의 날이지만 눈 때문에 벌써 몇 주째 거르고 있다. 저녁으로 꼬리곰탕이 나왔다. 뜨거운 국물에 하루 종일 추위에 시달리던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과 함께 지냈다.

내일은 제발 눈이 오지 않기를...



올 봄엔 ‘꽃’이 되어 보자!

## 봄철 피부관리법



제1전투비행단 대위(진) 이 선 미

### 봄에 더 거칠어지는 피부

겨울 동안 외부로부터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거의 닫혀있던 땀샘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계절이 봄이다. 이로 인해 땀구멍과 기름샘이 열리면서 땀과 기름이 활발하게 배출되고 기온상승으로 인해 피지분비도 많아진다. 또 바람과 꽃가루, 황사로 인한 먼지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장병들의 피부도 거칠어지기 마련.

이에 1비에서 ‘뽀사시한 피부’ 상위 랭킹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장병들에게 피부관리 노하우를 물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결’. 바쁜 가운데서도 피부에 신경 쓰는 장병들이 절대 빼먹지 않는 것이 바로 ‘세안’이다. 요즘 장병들은 보급되는 비누 대신 얼굴 전용 세안제인 ‘폼 클렌저’를 많이 사용한다고.



♣ 깨끗한 세안 후엔 보습이 필수. 그러나 얼굴을 때리며 스킨을 바르는 것은 금물. 손을 이용해 얼굴을 닦듯 스킨을 발라야 한다. 또 끈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에센스. 뽀사시 장병에게 보습은 필수이고 로션은 기본이다. 꼭 챙기자.

♣ 취침 전 5분만 투자해라. 요즘 시중에는 바르는 팩뿐 아니라 그냥 얼굴에 덮기만 해도 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 담배 한 갑 대신 보습용 팩 한두 개를 구입해보는 노력을 해보길. 피부가 달라진다.



♣ 일과 중에 햇빛에 노출되는 장병들의 피부. 선크림은 여름 피서 때만 바르는 것이 아니다. 햇빛이 아닌 실내조명에서도 자외선이 발생한다는 데, 선크림은 365일 바르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 얼굴만 관리해선 2% 부족하다. 거칠어진 손발도 관리대상. 특히 손이 깨끗해야 얼굴도 깨끗해진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수시로 씻어줄 것. 부드럽고 촉촉한 손을 위해 핸드크림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바르자.

매일 피부에 투자한 짧은 시간이 어찌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도 ‘꽃’ 소리 한번 들어 보자. ♣

## 「2006년 방공포병 종합전술훈련」 현장을 가다!



방공포병사령부 제2방공포병여단 중위 김 제 관

### 매서운 겨울의 채찍에 맞서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싸늘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하다. 이육사 시인이 혹한의 추위를 '매서운 겨울의 채찍' 이라고 비유한 것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방공작전을 수행하며 겨울의 차가운 입김을 온전히 몸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방공포병에게 겨울은 여간 고된 계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방공포병은 영하의 추위에서도 기민한 판단능력과 적절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태들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행동절차를 정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전술훈련의 열기 속으로 빠져 봅시다!

이런 이유로 방공포병은 혹한기에 맞추어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인 매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겨울철에도 방공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공포병의 실력을 강하게 담금질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펼쳐진 전술훈련에서 방공포병 장병들의 훈련에 임하는 진지함과 열정은 한 겨울의 폭설도 녹여버릴 듯이 뜨거웠다. 하지만 제 아무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도 내가 안보면 그저 그런 영화인 법. '왕의 남자'의 인기 다음으로(?) 뜨거움을 뽐어내는 '방공포대의 사나이들', 그 전술훈련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어 가보자.

### 보름달과 함께한 훈련의 시작

새벽부터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비상소집이다. 잠결에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10분. 비상소집 완료까지 20분이 남았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은 후 부대로 향한다. 여기저기 분주한 움직임 속에 사무실로 들어가 군장을 갖추고 무기고에 가 총기를 가져온다. 마침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이던 2월 13일 새벽, 아직도 저물지 않은 밝은 보름달과 더불어, 전술훈련은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목표를 명중하는 화살도 중요하지만, 화살을 걸어



수화에 맞춘 도로경계



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



2박 3일의 취침을 위한 막사 설치

쓸 활이 망가진다면 화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현대 전에서는 적의 대공화망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표다. 그만큼 방공포의 중요성이 크고, 방공포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적이 전투기 공습, 미사일 폭격, 혹은 특작군 침투 등을 통해 방공포대의 무력화를 피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전술훈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에 대비해 전술훈련에서는 우선 적 특작군 침투 상황을 가정한 기지방호 훈련을 실시한다. 장병들은 기지 요소요소 적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배치되어 적 특작군이 부대 강습을 시도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실제 전투의 긴박감과 버금가는 상황을 연출하며 적을 제압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게 된다.

적이 스커드로 공습해올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 대처할 경우 대량살상과 작전불가를 초래하는 적 스커드 공습 상황이 주어지면 전 장병은 곧바로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방공호로 대피한다. 더불어 스커드 공격시 부대가 화생방 물질에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오염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제독을 실시한다.

재난통제 훈련은 화생방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실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전술훈련의 묘미, 숙영과 전투식량

전술훈련 시에는 기지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대형 막사를 설치한다. 이때 설치되는 막사는 학창시절 캠핑을 가서 치던 조그마한 텐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텐트이다. 이 막사는 2박 3일간의 전술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 낮에는 작전의 요새로, 밤에는 포근한 안식처로 이용된다. 특히 훈련에 지쳐 돌아온 장병들에게 있어 이 공간은 최고의 궁궐과도 같을



훈련에 앞선 나이키 외부점검



화생방 훈련 중 터진 연막탄



전술훈련의 묘미, 전투식량



병사들의 오아시스, 대형막사

것이다.

그러나 장병들에게 있어 막사는 단순한 쉼터나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 막사가 워낙 대형이다 보니 부대원 전체가 합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훈련의 시작인 셈이다. 막사 하나를 설치하는 데에도 단결과 협동이 강조되고, 이것이 훈련 내내 모든 장병들을 전우애로 뽐뽐 뭉치게 해주는 것이기에 막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훈련의 절정은 전투식량에 있다. 전술훈련 기간 동안의 끼니 중 몇 끼는 전투식량을 먹게 되는데 전투식량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술훈련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전투식량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건조된 쌀이나 야채, 김치 등이 불어 볶음밥이 되는 마술과 같은 꿈의 식량이다. 분말가루로 되어 있는 국은 물론, 디저트로 초콜릿까지 들어있으니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있어 최대의 진수성찬이고 최고의 밥상인 셈이다. 훈련의 고달픔보다도 전술훈련을 실시하기에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에 식사 시간만큼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행복 그 자체다.

물론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이지만 전술훈련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훈련의 묘미마저 없다면 이 혹독한 추위에 고된 훈련을 어찌

견딜까 싶다.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당장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훈련이 뻑뻑하고 긴장감이 묻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훈련을 이틀에 걸쳐 수행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다소 지치기 마련이지만, 그에 걸맞은 정도로 방공포병의 전술전기는 날카롭게 날을 세운다.

훈련 첫날은 봄기운이 완연해 과연 종합전술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다음 날부터 제대로 된 추위에 쌀쌀한 겨울의 마지막 비까지 더해져 방공포병 장병들을 매섭게 몰아쳐 댔다. 차가운 비바람과 강도 높은 훈련에도 경계 근무를 서며, 눈 덮인 조국의 산하를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조국과 강산을 지키고 있다는 방공포병의 자부심으로 완벽한 영공방위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방공포병은 혹한기를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여 이육사 시인이 말했듯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단단한 영공방위 속에 국민의 행복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 무지개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방공포병의 보람이고 자랑이기 때문이다. Ⓜ

전문지식에 날개 달아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 ▣▣ 美대학원생 인명사전에 등재된 현인하 소령 ▣▣

#### 상위 1%로 'Chancellor's List'에 이름 올리다

미국 교육분야 인명사전 전문발간기관인 ECI(Educational Communications Inc.)가 '04년도와 '05년도 미국 3,000여 개 우수 대학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처음으로 발간한 「미 대학원생 인명사전(Chancellor's List)」. 미국의 대학원생 중 성적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석·박사과정 재학생들만이 등록된 이 사전에 현역 공군 소령이 포함되었다.

주인공은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현인하 소령(공사 38기, 40세). '02년 8월부터 '06년 1월까지 3년 6개월간 '미 위치타 주립대학원(Wichita St. Univ.)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현 소령은 전 과목 A를 받아 평균 평점 4.0만점에 4.0을 획득했다. 석·박사 교육기간 중 국내의 학술회의 논문발표는 5회나 되고, 박사기간 중 3년간 조교활동을 하며 미 학부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공부 노하우는 무엇일까? 발표와 프로젝트, 숙제와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미 대학원 수업.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 소령은 발표와 프로젝트는 방학·휴일 등을 활용하여 미리하고, 학기 중에는 강의가 끝난 후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숙제를 끝마치는 '학생으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었다. 누구나 다 아는 '철저한 연습과 복습'이 현 소령의 노하우.

이처럼 뛰어난 학업성적을 보인 현 소령의 전자공학 박사학위 논문은 「단일신호를 활용한 대형 주시시스템과 단말체계간 설계 및 제어기술 연구(Stochastic Control of Unified Decentralized

Singularly Perturbed System)」. 이 논문은 지상 통제소에서 공중·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 등의 단말체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소령은 “그동안 연구하고 습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군과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공부 노하우?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시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명예를 얻은 현 소령의

## - 美대학원생 상위 1% 현인하 소령과 만학도 진성춘 원사 -

### ▣▣▣ 만학도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진성춘 원사 ▣▣▣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은통 새까만 학사모 대열 속에서 희끗희끗한 흰 머리는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대학원장상을 수상하며 석사학위를 받은 제30방공관제단 31전대 진성춘 원사(기고 10기, 45세). 불혹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만학도가 겪은 온갖 고난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젊은 시절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긴 했지만 진 원사가 본격적으로 만학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이공계열에선 은퇴를 바라본다는 나이 마흔에 컴퓨터학과

에 입학하여 전과목 A+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진 원사가 아니었다.

‘사이버 디지털대학’을 졸업한 데 이어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으로 진학했다. 아침에는 부대로, 일과 후에는

도서관으로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손에 쥐어진 석사학위와 4.3의 졸업 평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학위가 아니었다. 남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한 끝에 얻어낸 만학도의 피와 땀이 서린 값진 열매였다.

#### 현장경험과 이론에 두루 능통

진 원사는 제1MCRC(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 중앙방공통제소)에서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교신에 쓰이는 통신장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경험을 이론과 접목시키고 싶어 대학에서 무선통신과 무선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분야를 파고들었다.

실무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알게 되어서 공부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통신장비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일과 후 학교로 향할 때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현장경험과 이론에 두루 능통한 덕에 진 원사는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 공중 전투기동 장치) 음성통신체계의 장거리 구간 소통 방법을 해결하여 지난 해 ‘공군 우수 정비사’

로 선발되기도 했었다.

원서교재를 읽느라 영어공부까지 다시 해야 했던 건 솔직히 조금 힘들었다며 웃음 짓는 진성춘 원사. 그에게 다음 목표를 묻자 멋쩍은 듯 답한다. “글쎄요, 우선은 이론적 지식을 결집인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싶네요.” 뜨거운 그의 삶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



자료작성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박슬기  
제30방공관제단 중위 홍덕화



## 카메라 렌즈로 기록한 다이만의 역사

제58항공수송단 상사 정 의 석

다이만 부대의 임무는 이라크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자이툰 평화재건사단과 동맹군들의 인원·물자를 공수하는 것이 주이지만, 국내 귀빈들의 이라크 공수작전 또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들 귀빈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브리핑을 받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모습들을 찍다보면 이내 이라크 아르빌 공항에 바위가 닿고 주요 촬영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아르빌에서 귀빈 수행임무를 마치고 쿠웨이트 기지로 귀환할 때에는 잠깐의 여유가 생긴다. 그때는 여러 상념이 떠오르는데, 파병 전 아내와의 약속은 매번 빠지지 않는다.

“이라크에는 안가는 거지요?”, “그럼!.....~!”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귀빈들은 각종 행사와 개인 사진을 최고의 기념품으로 여긴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뿌듯하기에 사무실 귀대 후 곧바로 사진 정리, 편집 작업에 들어간다. 방문자가 많을 때면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른 새벽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또 한 나의 보람이기에 하루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만족감으로 시원스레 날리곤 한다.

### 百聞이不如一見!... 나는 다이만 역사의 산증인

매끈하게 꾸며진 기사 한편보다 함축된 의미의 사진 한 컷이 더 리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독자들은 사진을 통해 사건의 현장 속으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은 기록, 보도, 광고 및 홍보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역만리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파병 역사의 산증인으로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는 다이만 부대의 '사진반장'이다.

### 파병 초기의 임무수행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을 밟은 지 4일 밖에 안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국방부장관님의 다이만 부대 방문과 이라크 아르빌까지의 공수임무를 동행 촬영하는 것이었다.



## 카메라의 가장 큰 적은 모래바람

다이만 장병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가 '생활의 적'이라 할 수 있다.

한여름의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수시로 불어대는 모래바람은 비행안전뿐 아니라 장병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항공기의 주요 부품과 운용하고 있는 각종 첨단장비, 심지어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특히, 카메라는 모래와 먼지에 더욱 취약하여 국내보다 더 고장이 잦다. 촬영 전에 세척하고, 점검할 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軍 선교단 일행 방문시 단본부 광장에서 있었던 기념 촬영도 난처한 기억 중의 하나이다.

## 나를 주시하는 40여 명의 눈길

기념촬영은 방문단에게 제공되는 사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40여 명이 나의 카메라를 주시하였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뒤이어 액정모니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노출과다로 사진을 쓸 수 없었고, 컨트롤러 패널에는 'Err'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신속히 카메라 전원을 껐다 켜 후 다시 촬영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찰나보다도 더 짧은 순간, 등에서 흐르는 땀,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다가 사진 구도를 잡아주던 정훈참모에게 도움을 요청,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대기 중이던 문화홍보장교의 카메라를 급조, 3차에 걸친 촬영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때 이후 중요한 장면을 촬



영해야 할 경우 예비 카메라를 한 대 더 준비해 놓는 습관이 생겼다.

## 사진반장으로서의 보람, 그리고 3만장의 컷

군인으로서 해외 파병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무총리님을 비롯하여 참모총장님 일행을 포함한 다수의 귀빈행사 등,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컷 수를 세어보니 3만장은 족히 넘는다. 내 평생 찍을 사진을 이곳 쿠웨이트 파병기간 6개월 동안에 찍게 된 셈이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나만의 사진촬영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촬영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더불어 내가 촬영한 사진이 각종 언론매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실리는 것을 볼 때면 다이만 사진반장으로서의 보람을 많이 느낀다. 때로 동료들이 찾아와 사진 촬영 기법, 편집 방법 등을 물어 올 때 설명해 주는 것도 큰 보람 중 하나였다.

젊은 시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만으로도 전장 속 사진 촬영 임무는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열하는 태양과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 쿠웨이트에서 파병사에 길이 남게 될 다이만 부대의 역사와 명예를 담아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

카메라 렌즈에 담은

# 다이만

이번호 「여기는 다이만」에서는 다이만 장병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작전임무와 동맹군과의 교류, 장병들의 일상생활, 다이만 장병들이 직접 참여했던 '사진 콘테스트' 등을 통해 다이만의 숨은 모습을 감상해봅시다.



1. 사막의 모래먼지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장착 중인 다이만 장병들. 엔진 덮개는 다이만 부대만의 특별한 항공기 보호장구이다.



2. 주기장에 쌓인 모래를 치우고 있는 장병들.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이처럼 많은 양의 모래가 주기장을 덮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기 마련이다.
3. 주기검사를 위해 한국으로 출발 전 지휘관에게 신고를 하고 있는 장병들



4. 이라크 아르빌로 보급물자를 공수하고 있는 장병들
5. 석양이 질 무렵, 항공기를 정비 중인 정비사. 정비사들의 혼을 담은 정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6. 자이툰 부대의 교대 병력을 수송 중인 다이만 부대
7. 이국적인 풍경의 이라크 사막 상공을 비행 중인 다이만 부대의 C-130 항공기

태권도 승급심사를 마친 태권도 동아리 장병들에게 하태직 단장이 붉은띠를 매어주고 있다.



신년을 맞아 일본의 전통 문화 '모찌스끼' 행사에 참석한 동맹군 지휘관들



다이만 부대 국기 게양대에는 한국, 쿠웨이트, 미국, 일본의 동맹군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설날맞이 동맹군 윷놀이 체험행사



'06-1차 한국어학당의 수업모습. 현재 미·일 장병 3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걸프전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대 인근의 무기무덤



전갈을 구경하고 있는 장병들



다이만 부대에 내린 우박으로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즐거워하고 있는 장병들



이날 부대에는 바둑알보다 더 큰 우박이 쏟아졌다.



낙타와 함께한 동맹군과의 사막산책



총 300여 편의 DVD를 보유, 장병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사막 오토바이를 타고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 2005년 5월에 있었던 '다이만 역사(力士) 선발대회'의 한 장면





'내가 진짜 헤라클레스' (C-130 항공기의 닉네임이 '헤라클레스' 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한입꺼리', 이글루 위에 올라서서 연출한 사진



'브루스 브라더스'



'사진 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는 장병들

## 남편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 밥상'

- 「KBS-2TV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 '수상한 밥상」 방송 촬영기 -

이 주 연(제38전투비행전대 정중철 소령의 아내)

**부**부란, 느낌표(!)로 만나 물음표(?)로 살다 줄  
**우**임표(……)로 끝난다고 한다. 처음 만나 연  
애를 하면서 연발했던 느낌표의 감동이 잦아들 즈  
음, 다시금 느낌표를 가질 만한 추억 하나쯤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게 온 '방송 촬  
영'이라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 부부생활의 '느낌표'를 위한 추억 하나

「KBS-2TV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 '수상한 밥  
상」은 남편 직장으로 몰래 찾아가는 깜짝 이벤트이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어 밥상을 차려 가는데, 남편  
과 직장 동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차려간다고 했다.

밥상... 교편을 잡고 있는  
관계로 아이들과 떨어져 주말  
부부로 지내다보니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지 못한  
지 4년째이다. 남편을 위한 밥  
상은 1년, 신혼 때 차려본 게  
고작이다. 퇴근하기를 기다려

국을 데우고 막 지은 고슬고슬한 밥을 그릇에 담아  
낼 때, 잘 구운 김을 자르고, 오이소박이를 무쳐낼  
때, 내 마음은 너무도 행복했다.

내 나이 스물 두 살 봄에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술하게 많은 밥을 사주었다. 우리는 마  
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정이 들었다. 밥상 앞에 마주앉  
아 밥을 먹는 일, 그것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잔정이 드는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변변한 밥상도 못 차려주고 마주 앉아 밥 먹는 일도  
뜸해져 애석하던 차에 '수상한 밥상'은 뜻 깊은 선



물이 될 것 같았다. 애뜻하기는 하여도 일상을 함께 하며 공유할 추억이 부족한 주말부부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될 만했다.

더구나 평소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께 멋진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 다른 생각은 해 볼 겨를도 없이 단숨에 용단을 내렸다.

### 생각처럼 쉽지 않은 방송 촬영

그러나 방송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뿐더러 숫기도 말주변도 없는 난 촬영 당일 대부분을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찔해졌다. 이 멘트를 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토록 남편을 곤혹스럽게 하는 아이디어를 누가 다 냈을까 싶었다.

남편이 어떻게 찍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후문에 따르면 천연덕스럽게 모든 상황에 잘 대처했다고 한

다. 영화배우 최은주 씨는 '병영 체험 조종사 24시'를 찍는다고 위장하여 남편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케 했다. 조종복에 커다란 꽃 장식을 달아주고, 둘째가라면 서러



울 음치 남편에게 공군 군가를 부르게 했다. 요가 동작을 가르쳐 준답시고 우스꽝스러운 '올챙이 송' 동작을 하게 하고 '독수리 오형제' 포즈를 취하게 했다. 남편이 이 모든 작전에 의연히 대처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너무도 굳어 있었다. 속으로는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도 겉으로는 의연한 듯 애를 쓰는 내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떤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게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밸런타인데이 날 아침 6시 30분에 군산으로 출발해 밤 10시경까지 쉬지 않고 촬영이 진행되었다. 음식을 만들 군산의 한 식당에서는 이미 오전 7시경에 도착한 촬영팀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은주 씨가 오자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꽃게탕과 꽃게찜, 간장 게장이 주요리인데, 전문

요리 가로부터 전부 요리 방법을 배웠다. 주부 5년차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수룩한 칼질 솜씨에 모두 박장대소하고 말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완성된 꽃게



요리를 찍기 위해 여러 차례 음식을 만들고 모양을 꾸며냈다. 음식 하나 찍는 것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방송인들의 전문성에 놀랐다.

음식 장만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부대에 도착했다. 대대장님이 정문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환대해주셨다. 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사불란하게 촬영이 진행되었음에도 애초에 음식 만드는데 할애한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촬영이 지연되어 조종사들이 저녁 식사를 늦게 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애가 닳기도 했다.

#### 남편의 얼굴에 긍지와 자부심이 묻어나길 바라며

나의 작은 바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부대에 출입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고작해야 뉴스를 통해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전투기만을 볼 뿐, 정작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베일에 싸여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들은 조종사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구별된 전문성을 보고 싶어한다. 어떻게 장비를 차리고 어떤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일터로 나가며 전투기 한 대가 고공을 날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고 싶어한다.

다소 코믹하게,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즐겁고 유쾌한 그림을 만들며 끌여가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왈카스 하니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는 조종사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어 일반인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로써 공군과 일반인들의 간극이 한층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시청자들이 그러한 일상적인 웃음, 재치, 재담이 만들어 내는 친숙함 이면에 영광을 지키는 직업 세계에서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을 간취할 수 있다면, 조종사 한 명이 탄생하기까지의 지루한 과정과 숱한 시간 절차탁마해 온 조종술의 묘미, 해를 거듭할수록 돈독해지는 사명 의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얼굴에서 멋진 자부과 긍지가 묻어나기를 고대한다.

촬영을 마치고 나서 대대장님이 주신 휴가 덕에 남편이 광주까지 데려다 주었다. 함께 오면서 오랜만에 긴 담소를 나누었다. 피곤이 몰려와 눈이 감기는 데도 대화의 끈이 이어졌다. 우리 부부의 '느낌표'로 남을 '수상한 밥상',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사랑하고, 비행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온갖 사념 저버리고 창공을 지킵니다.  
당신은 또한 내 마음의 조종사.  
당신을 사랑하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 2006년 2월 14일 조종사의 아내 씀 -

# 국내 독자개발 첫 항공기 KT-1 '웅비'



전투발전단 무기소요처 소령 고 동 철

지난 호까지 세계의 항공기와 항공무기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우리기술로 만든 항공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시작은 공군에서 기본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처음 개발에 성공한 KT-1이다.

## 개발배경

KT-1은 대한민국 공군의 기본 비행훈련을 위해 처음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군용 항공기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항공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F-5E/F 전투기 면허 생산으로 축적된 항공기 조립기술을 보유한 우리 공군은 T-41B 초등훈련기 및 T-37C 중등훈련기를 대체할 '한국형 훈련기 개발사업'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발 타당성이 입증되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1988년 KT-1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KT-1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제작·비행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 탐색 시제기를 완성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1,0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품목대비 약 80%, 가격대비 약 60%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가진 KT-1 '웅비'가 태어나게 되었다.

공군에서는 2000년 7월에 첫 KT-1 항공기를 인수했다. KT-1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최종 조립 업체인 대우중공업을 비롯해 기체 부품은 대한항공, 엔진 삼성항공, 에비오닉스(Avionics : 항공전자장비) LG정밀, 랜딩기어는 기아기공 등이 협력 업체로 참여하였다. 현재는 통합 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에서 생산하고 있다.

## 특 징

KT-1 훈련기는 단발 저익 터보프롭(Turbo prop : 프로펠러 엔진) 항공기로 편대비행, 야간비행, 계기

비행, 저·중고도 항법비행, 그 외 기본훈련에 요구되는 모든 비행이 가능하다. 조종석 계기반, 조타성과 속도영역 등에서 고등훈련기와 연계가 쉽고, 낮은 속도에서의 선회 특성과 이착륙시 항공기 조작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특히 동급훈련기 중 유일하게 '배면스핀'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조종석

주요 장치로는 이착륙시의 급격한 엔진출력 변화에 대해 자동으로 러더(Rudder : 방향타)가 조절되어 조종을 쉽게 하는 자동 러더트림 장치,

학생조종사들이 제트 고등훈련기나 전투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된 조종석 계기반, 10,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갖는 일체형 주익, 동급 기종 중 가장 우수한 시계를 제공하여 교관조종사가 비행 교육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계단식 좌석배치(Tandem Cockpits) 등이 있다.

주요  
재원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기고	3.68m	자체중량	1,910kg
기장	10.26m	최대 탑재연료	408kg
기폭	10.59m	최대 이륙중량(기동)	2,540kg
프로펠러 직경	2.44m	최대 이륙중량(외부직제)	3,311kg

성능

구 분	성 능	구 분	성 능
최대 제한속도(Vne)	648km/h	이륙거리	250m
최대 운용속도	574km/h	착륙거리	397m
최대 수평속도	518km/h	체공시간	5시간 이상
최대 상승률	969m/min	배면비행	30초 이상
최대 상승고도	1,580m	운용 온도범위	-25℃~+45℃

개발성과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KT-1 훈련기는 우리나라를 항공기 생산국으로 진입하게 한 획기적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KT-1은 동급 훈련기 중 처음으로 100% 컴퓨터로 설계했으며, 설계 자료는 물론 정비와 교육 자료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어 학생조종

사들이 전자교범을 통해 손쉽게 교육 받을 수 있다.

KT-1 개발은 국내 항공기 연구·개발체제와 군용항공기의 기술시험, 운용시험의 절차와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고등훈련기, 차기전투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성능개량도 우리 기술로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외국 항공기 수입 대체는 물론 KT-1의 수출 추진으로 외화 절감과 항공산업분야 연구·생산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도

전 망

KT-1은 2003년 인도네시아에 7대를 수출하였고, 2005년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5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KT-1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는 항공기 수입국에서 세계에서 13번째로 항공기 수출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KT-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수출 가능국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중남미 시장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의 아시아, 그리고 터키, UAE 등의 중동 지역에 적극적인 수출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약소탕, 해안경계임무 등 KT-1급 항공기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KT-1의 수출시장은 밝다.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KT-1이 세계의 하늘을 누비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



앙드레 마지노의 기념우표



프랑스 육군장관 앙드레 마지노(Andre Maginot)

##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마지노선

군역사기록관리단 대위 김만식

### 마지노선... 난공불락의 방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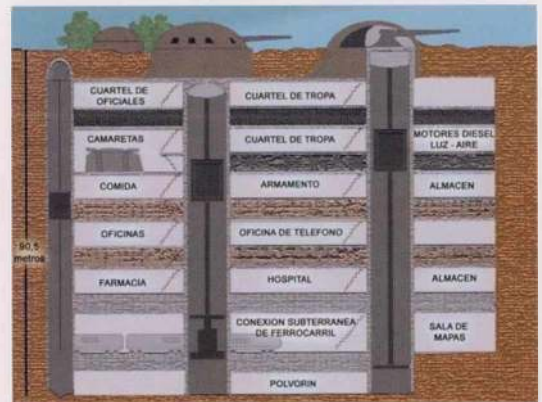
마지노선(Maginot Line)은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독일의 침략을 사전에 봉쇄하고 프랑스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 육군장관 앙드레 마지노(Andre Maginot 1877년~1932년)의 이름을 따 세워진 난공불락의 방어시설이다.

1927년 공사에 착수하여 10년만인 1936년에 완공을 본 마지노선은 총 160억 프랑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총 연장 약 750km에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따라 벨기에와 스위스 국경까지 이르렀다. 1차 세계대전의 비효율적이고 비극적인 참호전의 경험이 투영되어 발전실, 탄약고, 통신실, 작전실, 병원 등 주요 시설물이 전부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외부로는 30cm 두께를 넘는 콘크리트 방벽 속에 각종 대전차포와 기관총 진지가 배치되었으며,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과 이중철골벽, 철조망 지대 등이

감싸고 있었다. 개미 한 마리 들어 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견고한 방어망을 자랑하는 마지노선은 프랑스와 프랑스군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다.

이처럼 완벽 그 자체인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한 독일은 영원히 프랑스 영내에 단 한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전쟁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노선의 구조. 지하 깊숙이 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철도망까지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10년이라는 건설 기간을 통해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마지노선에도 약점은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벨기에로는 마지노선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방국 벨기에와 마지노선을 맞대고 협박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안주 vs 독일의 정면돌파. 결과는?

프랑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요새인 마지노선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주목하고 있었다. 독일의 입장에서 프랑스군의 43개 사단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마지노선의 정면 돌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때문에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우회 공격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기만한 다음, 수목이 너무나 울창하여 전차와 같은 기계화 부대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아르덴느 숲을 통과하여 프랑스로 밀고 들어간다는 야심에 찬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이 마지노선이 연장되어 있지 않은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를 우회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아르덴느 숲을 통해 공격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였다. 다만 만일의 사태를 염려한 프랑스가 아르덴느 숲에 상당량의 지뢰를 매설해 두었을 뿐이었다.

### 독일군의 기만공격에 뚫려버린 아르덴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독일의 주공이 개시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이 같은 전략적 고정관념을 역이용하여 기만공격을 준비 중이었다. 독일의 주공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아니었다. 물론 마지노선은 더더욱 아니었다. 울창한 산림 때문에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던 아르덴느가 독일의 주공방향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연합국 측은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를 기해 독일 B집단군 30개 사단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동시에 공격해 들어가자, 이들을 주공으로 판단하여 프랑스 제1군 병력과 영국의 대륙 파견군 등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북상시켰다.

하지만 진짜 주공인 독일 A집단군의 45개 사단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준비 중이었다. 이 시각, 벨기에 국경 쪽에 위치한 아르덴느 숲속에서



2차대전 당시 전형적인 프랑스군 보병



◀ 프랑스가 구축한 마지노선을 둘러보는 미군 장병들

▶ 아르덴느의 울창한 산림을 뚫고 지나가는 독일군 전차



는 프랑스가 매설해놓은 상당량의 지뢰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침투에 성공한 독일군 공병대가 이미 전차의 기동로를 확보해 두고 있었다.

이제 독일에게 남은 일은 아르덴스를 통과해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올라가 있는 100만의 연합군 주력을 프랑스 본토와 차단시켜 고립화한 다음 마지노선이 무력화된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뿐이었다.

### 승리의 여신은 고정관념을 깨 독일에게로

5월 10일 새벽 4시를 기해 독일의 전차들이 아르덴스 숲 일대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왔고 아르덴스로는 절대 전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프랑스군 각 부대는 어안이 병병한 가운데 기습을 받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고정관념에 안주하던 군대와 고정관념을 깨트린 군대의 전투는 당연한 결과로 귀결을 맺게 되었다. 공

격을 개시한 지 2일만에 아르덴스를 돌파한 독일군의 7개 기갑사단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을 가로 지르고 있는 뮤즈강을 도강하여 프랑스 영토로 밀고

들어갔다.

굉음과 함께 지축을 흔들며 끝없이 달려오는 독일군 전차를 맞아 전차를 단지 보병의 보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병력을 소량씩 분산 배치하여 운용하던 프랑스군은 3시간 만에 50여 대의 전차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애당초 전차간 전투를 처음 접해보는 프랑스군은 실전경험이 풍부한 독일군 전차의 상대가 될 수 없었고 독일군은 10일만에 아미앵과 아브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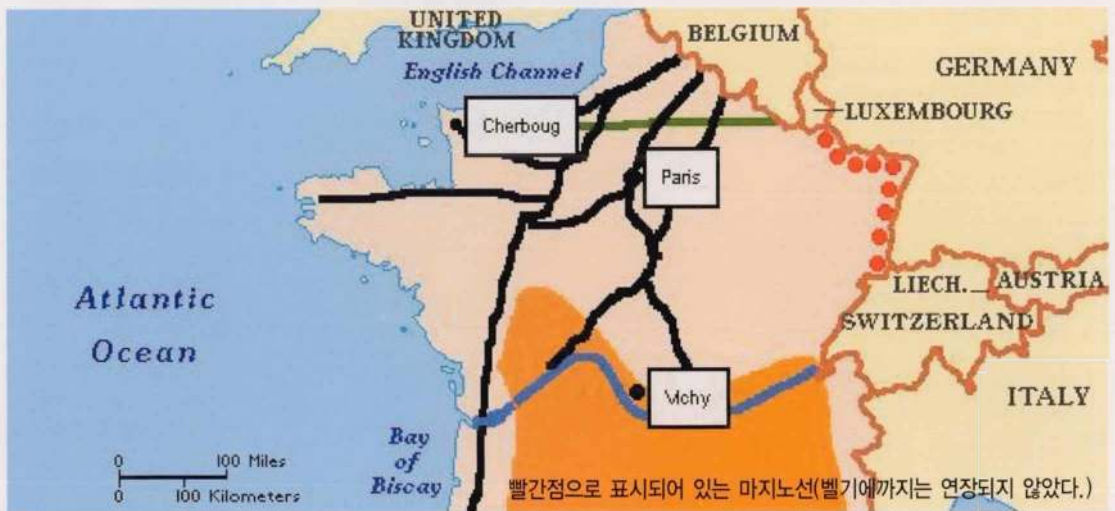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폭격하는 독일군의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



독일군의 포로가 된 벨기에군

까지 진출했다.

프랑스가 천문학적인 예산과 공사기간을 통해 구축한 마지노선은 전쟁을 막아보자는 의지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전략적 고정관념을 깨버린 독일군에 의해 결과적으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



빨간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지노선(벨기에까지는 연장되지 않았다.)



## 제8546부대 마라톤 동아리를 찾아...

제30방공관제단 중위(진) 윤재두

### Prologue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도로. 상쾌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큰 숨을 들이쉬어 본다. 저 멀리 산방산이 불쑥 솟아올라 바위산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고 잔잔한 바다에는 드문드문 고기잡이배들이 그림처럼 늦은 오후의 아늑한 햇살 속에 젖어들고 있다.

길을 따라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과 그 너머의 주인 모를 갈색 말 한 마리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달리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발걸음은 한결 더 가벼워진다.

### 아픔을 딛고 태어나다

우리 부대에 마라톤 동아리가 생긴 것은 작년 8월. 인사행정반장 정구현 중사를 중심으로 강병석, 장철훈 등 병사들이 모여 마라톤 동아리의 첫발을 디뎠다.

생기게 된 계기가 재미있다. 부대인근 대정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운동회 날마다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왔다. 재작년 부대에 공문이 왔는데, 내용인즉슨 공군 장병들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장병 3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동네

아저씨들, 주부들, 심지어는 대정초등학교 축구부원들보다도 늦게 들어온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끌찌는 물론, 뒤로부터 대여섯 등수를 모두 공군에서 휩쓴 경악할 만한 사건

이 벌어졌던 것. 충격이 컸던 장병들은 체계적으로 달리기를 하기로 하고 삼삼오오 모여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달리기 붐이 마라톤 동아리 정식 출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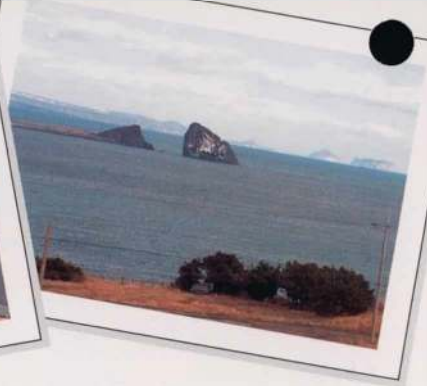
### 자연, 그리고 사람들

현재 마라톤 동아리는 정구현 중사의 지도로 김광욱, 장철훈, 박도형, 김진석, 유성현, 이영민 등의 여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나가면 5km 정도의 거리를 달리고 온다는 마라톤 동아리의 활동은 주 3회 정도. 그 중 2회는 연병장을 이용하지만, 토요일에 있는 활동은 영외로 나간다.

오후 3시경 인근 하모리 초입 매표지를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송악산까지 돌아오는 마라톤 코스는 자연이 제주도 마라톤 동아리 병사들을 위하여 선사한 '선물'이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풍경은 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날아가게 만든다.

이 연습코스는 대정읍민들의 마라톤 모임인 '대정 마라톤 클럽'과 공유하는 곳이다. 지도를 맡은 정구현 중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클럽의 회원들은 토요일마다 같이 연습하는 공군 병사들을 친동생과 같이 아낀다. '휴가를 나오면 우리 힘집에 한번 들러라'며 특별한 친근함을 과시한다.

달리는 상쾌함과 성취감, 볼수록 새로운 풍경 그리고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장병



들의 토요일 나들이는 항상 즐겁다.

### 추억

평소에 꾸준한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하였으면 한번쯤 향상된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마라톤 동아리는 지금까지 '제주 반딧불이 마라톤 대회', '제주 감귤 마라톤 대회', '방어축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왔다. 심지어 대대장님의 배려로 멀리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05년 국방일보 마라톤 대회'에까지 참가했었다. 반딧불이 대회에서는 6위, 방어축제 대회에서는 4위에 입상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마라톤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여주었던 '대정초 운동회 마라톤 대회'에서는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다. 실추되었던 공군의 명예를 1년만에 완전히 회복한 것. 역시 한다면 하는 공군인이다.

마라톤 동아리의 오래된 회원인 장철훈 일병은 특히 기억에 남는 대회로 '반딧불이 마라톤 대회'를 꼽았다.

"반딧불이 마라톤 대회는 제가 처음으로 하프코스에도 도전했던 대회입니다. 반딧불이 대회는 해가 진 뒤 목이나 허리에 야광 띠를 두르고 달리는 야간 마라톤 대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도로를 한 점의 빛이 되어 함께 달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경사가 급히 변하는 어려운 코스라서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했었는데, 1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난 후에 먹었던 국밥에 막걸리 한 잔. 군 생활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반딧불이 마라톤 대회에서 영감을 얻은 것일까. 마라톤 동아리는 때때로 야간연습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안도로를 야간에 달리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면 벌써 어둡습니다. 연습을 하러 해안도로에 나가면 주변에 조명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데 환한 조명을 켜 오징어잡이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에 도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빛으로 도로까지 환해지곤 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달릴 때가 정말 좋습니다.”

### 새로 태어나는 나의 몸

마라톤은 장병들에게 성취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였을 뿐 아니라, ‘건강’이라는 보너스까지 주었다.

“마라톤을 하다보면 기록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 담배를 피우다보면 그것으로 인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는 완전히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장철훈 일병은 ‘이 좋은 마라톤을 왜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지칠 때까지 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대 내에서 ‘사역 동아리’로 통한다는 마라톤 동아리. 마라톤 동아리 회원들은 마라톤을 알아주지 않는 대대원들을 못내 아쉬워했다.

### 함께 달려요!

“마라톤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든 누구와 함께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로 변하는 제주도의 해안도로 경치는 감탄을 절로 나오게 합니다. 첫발을 내디딜 때는 ‘과연 내가 어떤 거리를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서 시작하지만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정말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동아리원들을 위해 마라톤화와 초시계 등을 마련해주고 연습 때마다 독려하며 함께 달리는 정구현 중사는 더 많은 장병들이 함께 마라톤을 즐겼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 Epilogue

올해 3월 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목표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마라톤 동아리 회원들. 그들이 내딛는 한발, 한발은 평생의 건강과 넘치는 성취감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향한 약속일 것이다. ⊕





# 가장 지혜로운 한마디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옛날 어느 부유한 왕국의 늙은 왕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영토와 많은 재산,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왕을 칭송하며 평화롭게 살아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재산이나 영토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후대에 남길 만한 가장 값진 지식들을 12권의 책으로 정리하라"

학자들은 밤낮 없는 연구 끝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은 12권의 책을 왕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다. 12권도 너무 많구나. 1권으로 줄여라"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장 중요한 지식만 간추려 1권의 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왕은 "이 내용들을 모두 외워두기엔 1권도 너무 많구나. 단 한마디만 가져와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 날이 지난 후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학자가 왕에게 '가장 지혜로운 한마디'를 석판에 새겨 바쳤습니다.  
석판에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왕의 뒤를 이은 후손들은 왕국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때에도, 혹은 패배할 때에도, 흉년이 들 때나, 흉년이 들 때에도 항상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라는 한마디를 되새기며, 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으며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 비밀에 관한 영어 표현들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지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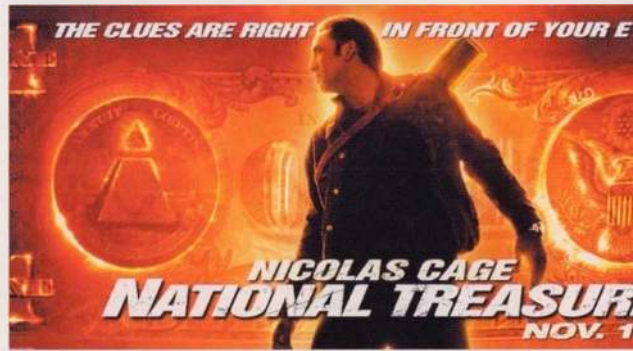
### 미다스의 손과 국보급 비밀

미다스 왕(King Midas)은 뭐든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왕이었지요. 그걸 빗댄 영어 표현이 the Midas touch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the Midas touch'를 가졌다면 '그는 어떤 일든 항상 성공하고 큰 돈을 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is a talented young man with the Midas touch.' 처럼 쓰면 '그는 손만 댔다하면 성공시키는 능력을 가진 젊은이야' 가 되지요.

미국에도 그런 별명을 가진 영화제작자가 있습니다. 바로 <진주만>, <캐리비안의 해적>, <아마겟돈> 등을 만든 제리 브룩하이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지는 영화가 대성공하는 비결이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미국)지폐 같은 것에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정보를 캐내 그것에 숨겨진 (국보급)비밀을 밝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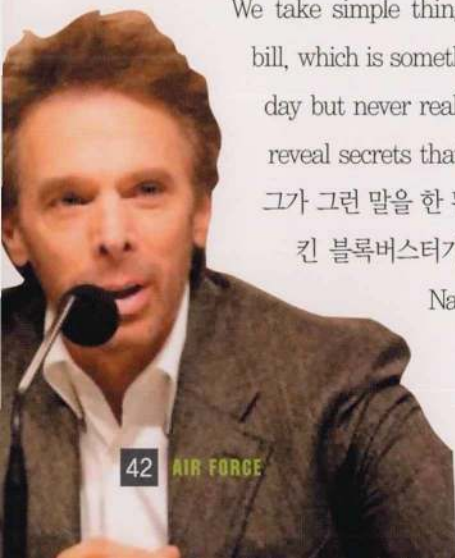
We take simple things, like the dollar bill, which is something you use every day but never really look at, and we reveal secrets that are hidden in it." 그가 그런 말을 한 뒤 얼마 뒤에 탄생시킨 블록버스터가 <내셔널 트레저 : National Treasure>이지요.

### 폭로만큼 통쾌한 오락은 없다?!



그에게 있어서 흥행성공의 비결이란 남들이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캐내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도 성공의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겠지요?

하지만 영화를 즐기는 관객에게 '폭로되는 비밀을 다룬' 영화만큼 즐거움을 주는 영화도 없겠지요. 관객의 그런 심리를 얼마나 잘 꿰뚫었으면 <LA 컨피덴셜>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범죄 이야기(It's a crime saga that will shock you.)', '가슴을 놀리게 만드는 미스터리(It's a mystery that will keep you guessing.)', '한눈팔지 못하게 만드는 스릴러(It's a thriller that will keep you riveted.)' 라는 광고카피를 달기까지 했을까요. 경찰과 범법자들을 동시에 용의선 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전개하는 '대담한 걸작' 이기에 그런 광고문이 과장은 아니겠지요.



## 극비 vs 공공연한 비밀

이번 호에선 비밀에 관한, 비밀에 얽힌 영어들을 익혀보도록 해요. 007 영화 중에 <For Your Eyes Only>라는 게 있지요. 우리말 제목은 <유어 아이즈 온리>인데요, 그것만론 '당신만 보라'는 의미가 함축된 '최고기밀'의 뜻이 전달되기 힘들지요.

<LA 컨피덴셜>의 confidential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의 뜻입니다. 그래서 Strictly Confidential은 '극비', confidential papers는 '기밀서류'가 되는 것이지요. confidential과 유사한 뜻인 classified도 classified document처럼 쓰면 '비밀문서'가 되지요. 'That information is classified for security

reason.'처럼 쓰면 '그 정보는 보안상 비밀이다'가 되지요.

비밀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secret이며 비밀병기(secret weapon), 비밀요원(secret agent)처럼 쓰이지요. 그럼, open secret은 무슨 뜻일까요? 까발려진(open) 비밀쯤 될 테니까 '공공연한 비밀'로

알아두면 좋겠군요.

우리말의 '씻'에 해당하는 hush가 변형되어 hush-hush mission처럼 쓰면 '비밀임무'의 뜻인데요, 'James Bond is on some kind of hush-hush mission-he's not allowed to tell anyone about it.'은 '제임스 본드는 모종의 비밀임무를 맡고 있고 누구한테도 그걸 발설해선 안 된다'가 되지요.

## 비밀엄수계약서 쓰고 시작한 <원헨> 번역

비밀을 발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약하는 비밀엄수계약서는 영어로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저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만든 <원헨·Munich>의 번역의뢰를 받았을 때 영화의 내용에 관계되는 어떤 정보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며, 영화번역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번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계약

서가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판 사람에게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해 영어로 말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세요.

*Don't breath a word of this to anyone.*

판 사람한테 절대 발설하지 마.

*My lips are sealed. 아무한테도 말 안할게.*

= I'll tell no one this secret.

*I'll take your secret to my grave.*

네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

*Your secret is safe with me.*

네 비밀 내가 꼭 지킬게.

*You have my word!*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





## 편지 그리고

# 우체통

방송작가 모은 설

**얼**마 전 편지를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통을 한참 찾았는데...  
세상에... 그 많던 우체통은 다 어디 간 것일까.  
아무리 봐도, 쉽게 눈에 띄질 않았다.

예전에 난... 편지 쓰기를 아주 좋아하던 아이였다.  
쓰는 것에 비해 부치는 일에 무척 게으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서랍 속에 부치지 않은 편지들이 잔뜩 쌓여 있곤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편지가 부치고 싶어져서  
서랍 속 편지를 꺼내든지, 새로 편지를 써서 우체통을 향해 걸어가고 했다.  
우체통은 우리 집에서 대략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밭목으로 툭툭 튀어 오르는 빗방울 사이를 걸어서  
우체통까지 도착하면 봉투가 젖지 않도록 조심해서 편지를 밀어 넣었다.  
가끔은 부치고 나자마자 후회가 밀려드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부치는 그 순간부터 답장이 기다려져 마음이 설레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예쁜 엽서를 발견하고는 부치고 싶었는데  
이럴수가.....  
알고 있는 주소가 생각나지 않는 거다.  
딱 하나, 우리 집 주소밖에.

사라진 우체통.  
기억나지 않는 주소.  
부칠 곳 없는 편지.  
어느새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큰 맘 먹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오랜만에 꺼내든 편지지만큼이나, 손 글씨도 참 오랜만이었다.  
수첩이나 일기장에 적는 것보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게 더 편해져서  
갈수록 내 필체 역시 개성을 잃고 방황해왔다.

삐뚤삐뚤...  
글씨는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서툴러진 내 손 글씨를 보니 덩달아 내 마음도 흐트러졌다.



글 속의 나와 말 속의 나는 분명 다른 빛깔일 것이다.  
생각의 정돈과 마음의 정화가 글에서는 더 많이 묻어난다.  
직접 대면해서 전하는 말도 좋겠지만,  
시간의 조각들과 마음의 양념들이 가득 뿌려진 편지는  
몇 배는 더 마음을 두드린다.

한 명 한 명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겠다던 다짐을 실천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주변 이들의 마음을 두드려야겠다.

수취인불명.  
부칠 곳 없는 편지가 아닌  
당신에게로 편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내 소중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상쾌한 봄바람도 함께 신고서. 🌸



언덕 위 성벽에 기대어 내려다 본 베로나

이탈리아 여행기 2편

## 연인들의 성지, 베로나와 피렌체

객원기자 김기현

연인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성지처럼 순례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베로나에 있는 '줄리엣의 집'과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다. 일부러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베네치아에서 베로나로 가는 기차를 탔고, 다시 베로나에서 피렌체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래서 수많은 연인들의 성지 순례에 우연히 순서대로 동참하게 되었다. 먼저 지나온 밀라노와 베네치아보다 작고 조용한 베로나는 줄리엣의 집과 주변 몇 유적지를 제외하면 관광객과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베로나

의 델라 스칼라 가문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로미오가 한밤중에 담을 타고 올라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믿어지는 줄리엣의 집이 베로나 옛 도심 가운데에 보존되어 있다. 줄리엣의 집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잔을 천천히 마시다가 지나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뒤를 따라가면 곧 줄리엣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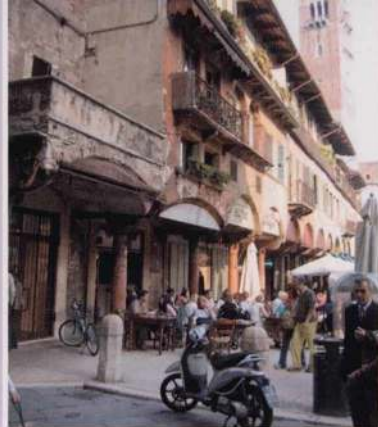
### 연인들의 성지 순례

줄리엣과 로미오가 입맞추었을 2층 발코니에서는





'줄리엣의 집'의 벽과 기둥은 온통 사랑을 속삭인 쪽지들로 가득하다.



베로나 거리

순서대로 연인들이 키스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다양한 나라의 연인들은 오래된 집에서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 벽돌 하나를 만지면서도 느낌을 간직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

줄리엣의 집은 건물과 소품들보다는 벽에 붙어있는 사랑을 고백한 수많은 쪽지가 더 감동적이었다. 조금의 공간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랑을, 작은 소망들을 써서 찢고 있던 껌을 이용해 벽이건 기둥이건 어느 곳이라도 붙여 놓는다. 그렇게 붙어있는 쪽지는 대충 세어 봐도 몇천 개, 거의 만 개 정도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 남긴 짧은 글이지만 연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소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도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글귀를 쓰고 찢고 있던 자일리톨 껌을 이용해 벽에 붙인다. 언제 어디서건 우리는 '사랑'을 소망한다.

### 매혹적인 옛 도시의 풍경

연인들의 행렬을 벗어나 지도를 꺼내 들고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대충 지도를 보며 멀리 보이는 언덕 쪽으로 무작정 걸어갔다. 조금 해매고 땀을 흘린 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성에 도착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까스텔 베기오'라는 이름의 성이었던 것 같다.

줄리엣의 집 2층에 올라가서 창밖을 둘러보면 올라가 보고 싶은 그림 같은 언덕과 옛 성이 보인다. 그 성을 헤매서라도 꼭 찾아 올라가길 강추!! 여행기를 쓰면서 가능하면 정보성 글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곳은 꼭 알려주고 싶다. 여기는 가이드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산책하는 그런 분위기의 옛 성이다. 베로나 시내에서 썬 와인 한 병과 잔 하나를 구해두고 이 언덕을 올라보자. 30분 정도 언덕을 오르고 나면 성벽 너머 베로나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제까지 내가 본 어떤 도시의 풍경보다 매혹적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해는 조금씩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가고 대성당 종소리가 도시 전체를 숙연하게 만든다. 아주 오래된 도시의 풍경에 내가 현재 존재하는 시각마저도 잊게 된다.

노란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면 옛 도시는 밤을 맞는다. 그 풍경 속에 와인 한 병을 봄바람과 함께 비우고... 적당히 취해 언덕을 내려와 강을 따라 걷는다. 강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쏟아질 듯 찬란한 밤하늘 별빛 아래... 언젠가 베로나 강가에 방을 하나 구해서 글을 쓰며 한동안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일기장에 써본다. 그런 아쉬움으로 다시 피렌체로 떠난다.

## 르네상스의 유산 피렌체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르네상스의 유산이라고들 한다.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 아래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우피찌 갤러리, 아카데미아 갤러리, 바르젤로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의 대표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미술작품을 보러 온 여행객들로 도시는 열정이 넘친다.

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성지인 두오모 성당(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도 자리 잡고 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과 영화에서 스무 살에 헤어진 두 연인은 '서른 살 아오이의 생일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10년이 지나 그 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두오모에서 다시 만난다.

이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연인들 가슴을 뜨겁게 녹여버렸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황홀한 예술품인데 연인들의 이야기까지 합쳐져 이제는 서너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는 두오모에 오를 수가 없게 되었다. 피렌체 어디에서나 보이는 거대한 두오모 위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추억을 만들고 있겠지...



피렌체 어디서라도 보이는 거대한 두오모

이미 베네치아와 베로나에서 너무 신나게 밤늦도록 거리를 뛰어다닌 덕분에 피렌체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미술관과 두오모 순례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렸다. 우피찌 미술관에 입장하려면 적어도 아침 7시까지의 도착해서 줄을 서야 한다는 민박집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오후 느지막이 갔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줄인지 알 수도 없고, 두오모를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두오모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지도 하나 들고 또 여기저기 걷기 시작한다.



## 독특한 색이 살아있는 이탈리아의 거리

이탈리아의 거리를 걷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거리의 작은 가게 하나 하나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다. 물론 모든 가게가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의 정신 없는 네온사인이나 경쟁적으로 내걸은 간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주차장 내부도 그냥 회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작은 술집의 대문은 매력적인 핑크로 칠해져 있다. 서울엔 검은색, 흰색, 은색의 큰 세단 자동차가 많은데 여기는 작고 다양한 빨강, 파랑, 하늘색 자동차가 좁은 이탈리아 골목골목을 누빈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다. 거리 곳곳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로 가득하다.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도는 경찰, 정장을 입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백발의 아저씨, 빨간 바지를 입고 자전거 바구니에 잔뜩 시장을 보고 가는 아줌마...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다. 너무 부러운 마음에 자전거 하나를 구해 이탈리아 거리를 누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 봄비 속에 피렌체의 풍경을 음미하다

햇살이 비추다가 다시 봄비가 조용히 내린다. 베끼오 다리를 건너 노천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메뉴를 찬찬히 살핀다.

이탈리아 중부, 투스카니 지역에 속하는 피렌체는 햇살이 좋아 이탈리아 안에서도 음식과 와인으로 유명하다. 몇몇 와인엔 '슈퍼 투스카니'라는 라벨이 붙여져 있다. 마니아들이 애타게 찾는다고 하기에 나도 빗소리를 들으며 슈퍼 투스카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본다. 오랜만의 봄비와 강 너머 피렌체의 풍경이 와인을 더 향기롭게 한다. 카페의 포근한 의자 속으로 온 몸이 가라앉는다. 몇 시간째 그 자리에 앉아 와인을 즐기고 유리잔 너머로 굴절된 피렌체와 사람들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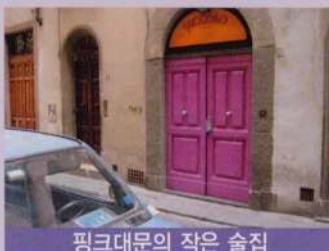
이제 여행도 절반을 넘어섰다. 피렌체 중앙역에서 피사를 지나 이탈리아 서쪽 해안을 따라 프랑스 니스까지 가는 기차 정보를 찾아본다. 한창 깐느 영화제가 시작되어 축제 분위기일 니스와 깐느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앞서간다. 프랑스 인사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며 연습해 본다. 봉쥬르(안녕하세요)~ 메르시(고마워요)~ 마음은 이미 프랑스다. 🇫🇷



노란벽의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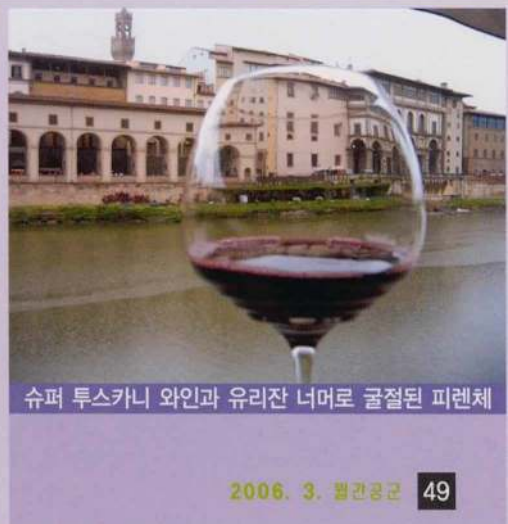
거리에 가득한 자전거



핑크대문의 작은 술집



피렌체에서 개봉한 '올드보이'



슈퍼 투스카니 와인과 유리잔 너머로 굴절된 피렌체



# 커피와 건강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지호

**퀴즈!**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4천억 잔 정도가 소비되고,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만 2천만 명이 넘는다. 때로는 맛으로, 때로는 멋으로 즐긴다. 우리 생활의 활력소인 이것은?

바로 수천년 동안 최고의 기호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커피'이다. 매일 하루에도 몇 잔씩 즐기는 커피. 커피는 과연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커피, 참을 수 없는 유혹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이다. 염소들이 어떤 나무의 열매와 잎을 먹고 평소보다 더 경충거리며 들뜨는 것을 본 한 목동이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먹어 보았다. 그랬더니 자신도 마구 춤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인간과 커피의 첫 만남이다.

이 신기한 열매에 관한 소문은 곧 여러 지방으로 퍼졌고, 이후 이 열매는 아랍세계와 유럽에 널리 알려져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 있는 신비의 명약으로 소개되었다.

커피의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은 카페인이다. 사실 커피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은 카페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활성화시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이외에도 평활근

을 이완시켜 이노작용을 일으키고, 순환기 계통의 운동을 늘리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며,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오래 전부터 카페인은 두통 완화의 목적으로 쓰였으며, 요즈음도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는 상당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약 40~108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인스턴트커피는 카페인이 두 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 로브스타종을 사용하고 고온 고압에서 3~4시간 정도 추출하기 때문에 레귤러 커피보다 두 배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흔히 맛이 쓴 에스프레소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에스프레소는 가장 카페인 함량이 적은 커피이다. 카페인이 적어 값이 더 비싼 아라비카종을 사용하는데다가 물의 양이 적고, 원두가 뜨거운 물과 닿는 시간도 30초 정도 더 짧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카페인은 반으로 분해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그 분해 속도에 차이가 있어 대개 2~12시간의 반감기를 가진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반면, 시험 전날 커피 몇 잔을 먹어도 도서관에서 엎드려 자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반감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인 제거 커피도 개발되어 있는데, 원두

아아 커피의 기막힌 맛이여! 그건 천 번의 키스보다  
 멋지고 마스카트의 술보다 달콤하다. 혼례식을 못 올릴  
 망정, 바깥출입을 못할망정, 커피만은 끊을 수 없다.

- 바하의 <커피 칸타타> 중 여 주인공 리센의 아리아

를 볶기 전 카페인을 97% 정도 제거하여 2~4mg  
 정도의 카페인만 들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  
 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커피는 중독성이다?

커피는 여러 효과 때문에 의례적으로 마시는 경우  
 습관성이 생기기도 하는데, 갑자기 끊으면 졸음, 피  
 곤, 두통 같은 금단 증상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2일 후에 최고조에 다다르지만, 7일 정도 지나  
 면 거의 없어진다. 대개 하루에 1/2잔씩 줄여 가면  
 이러한 부작용 없이 쉽게 끊을 수 있고, 콜라나 초콜  
 렛을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다?

커피는 위산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장관 증  
 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소화성 궤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하지만, 이미 궤양  
 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커피는 혈압을 올린다?

커피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따라서, 혈압을  
 측정하기 30분 전부터는 커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혈압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간 복  
 용했을 경우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커피와 흡연을 함께하는 경우, 둘 다 하지 않는 사  
 람보다 혈압이 약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흡연

의 위해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 커피와 암 발생의 관계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  
 고, 오히려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

카페인을 한 번에 250mg  
 이상 섭취하게 되면 불안, 흥  
 분, 두통 등의 중독 증상이 나  
 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성  
 인의 경우 하루에 카페인 300mg  
 정도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이것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커피 2~3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일반적으로  
 는 자신이 몇 잔을 마셨을 때 가장 상쾌한 기분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스스로 양을 조절하는 것  
 이 좋다.☺



사룩사룩 설탕이 녹는다.

그 정결한 투신, 그 고독한 용해

아아 심야의 커피

엄갈색 심연을 혼자 마신다.

- 박목월 '심야의 커피'



## 에너지 절약,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제1전투비행단 군수과장 중령 박성환

어린 시절, 전기에는 일반선과 비상선이 있었다. 일반선은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전기가 공급되다가 아침이면 중단되었고, 비상선은 24시간 공급되었다. 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하여 방과 방 사이 천장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형광등 하나로 방 두 개의 조명을 밝히기도 했다. 전기가 부족했던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불과 30~40년 전 우리나라 시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요즘의 우리는 전기를 풍족하게 쓰고 있다. 밤을 낮으로 바꾸기도 하고, 냉온풍기로 휴서, 휴한기 실내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 에너지 과소비 선두인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소비 측면에서 세계 선두그룹에 속한다.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나 에너지 소비수준은 10위(석유 6위, 전력 12위)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 이상으로

총 수입액 대비 24%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 1, 2위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유가도 약 3배 올랐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1\$ 상승은 국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5%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변수가 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켜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절약이 최선이다.

### 에너지, 절약이 최선이다

“에너지 절약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시민연대가 2개월 연속 전기세를 10% 이상 줄인 사람 중에서 선정한 ‘절약왕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오른 오순옥 씨의 이야기이다.

5남매를 포함, 일곱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라도 사고 방식을 바꾸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이 곧 경제이고 생존이다.



는 서울 강남의 전업주부인 오 씨는 “처음에는 에너지 절약이 약간 불편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고 말한다. 오 씨의 이야기는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에너지 불감증 환자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 공군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활동

우리 공군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발 맞추어 승용차 부제 및 카풀제 활성화, 장거리 차량 통합배차, 주간점등 억제, 냉난방기 사용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점심시간 사무용기기 전원 OFF로 대기전력 최소화 등 다양하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물론, 에너지 절약만을 너무 강조하면 작전이나 복지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부 오순옥 씨의

말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이 필요하다. 국제유가 3배 상승은 곧 수치상으로만 계산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씹씹이를 1/3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라도 사고 방식을 바꾸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이 곧 경제이고 생존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제8전투비행단 병장 권용찬

**입**대하던 날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지!”라며 어깨를 두드려주시던 아버지, “편지할 게...”라며 내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에 가득 눈물이 고여 바라만 보던 여자친구...

군에 입대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엔 힘들게만 느껴지던 군 생활에도, 이젠 발에 너무 너무 잘 맞아서 미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밀창이 많이 닳아버린 정든 내 전투화만큼이나 따뜻한 추억들이 생겼습니다.

#### 유난히 따뜻했던 추억 하나

요새 TV광고에 나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유난히 춥고 허전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기름 사용량이 많아져 우리 보급대대 병사들은 그 날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을 빈 드럼에 옮기느라 한창 힘들었던 그 때, 우리들보다 먼저 작업장에 나와서 근처

를 둘러보고 계시던 단장님께서 일하고 있던 우리들 근처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던 정 상병을 보고 웃으시면서 “박지성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2월 「KBS ‘청춘! 신고합니다」 프로그램 녹화 중 정 상병이 박지성 표정 흉내를 냈던 장기자랑을 기억하시고, 그 때 정말 잘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상병을 박지성으로 알아보신다는 단장님의 그 한마디에 작업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우리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한 명, 한 명의 입에 손수 껌을 넣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웬 껌일까. 단장님께서는 인자하신 표정으로, “너희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쉬어가며 조심조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함께 근무하던 정 상병의 입에 껌을 넣어주시는 순간, 정 상병의 눈에는 눈물 비슷한 것이 반짝였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울컥했습니다.



## 단장님의 사랑이 담긴 껌

'아,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군대에 왔을 때,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근처를 지날 때면 숨이 막힐 만큼 긴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군과 간부들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저는 단장님이 어려움 상대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단장님도 간부들도 병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 여섯이서 60드림의 기름을 채우는 작업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해 그 날 작업장에 있지 않았다면 단장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그 껌은 마치 어려서 살던 시골,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주기 위해 꼬깃꼬깃 종이 안에 싸놓은 사탕만큼이나 정겨웠습니다.

## 우리 영혼에서 우리니는 작은 사랑

우리들과 어울려 축구경기를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단장님. '어둠은 나무와 꽃들을 우리 눈 앞에서 감추어 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으로부터 사랑을 감추어 버릴 수는 없다'는 칼린 지브란의 글처럼, 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들도 단장님의 사랑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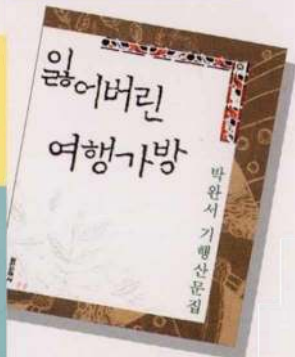
이런 군대라면 정말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저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뽀뽀하게 깎았다고 미안해하는 후임병에게 "괜찮아, 예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표정을 짓고 있는 정유찬 상병



'KBS '청춘! 신고합니다'에 '사랑의 가족'으로 출연한 정유찬 상병, 이진한·권용찬 병장(왼쪽부터)



박완서의

「**잃어버린 여행가방**」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한** 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원로 박완서, 1931년 생이니 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작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인생 자체가 젊은이들 부럽지 않을 활기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행문 모음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에서 그녀는 내내 ‘이 나이에 뭘 어딜 돌아다니겠느냐’라며 엄살을 피우고는 있지만, 흠먼지 피어오르는 남도의 어느 시골길을 따라서, 혹은 덜컹거리며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고물 비행기를 타고서 가벼운 깃털처럼 세상을 유랑하고 있다.

**기행문으로 가득 찬 종합선물세트**

책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박완서는 고도로 산업화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질박한 인심이 남아있는 농촌과 산촌을 예찬하고 있다. 산업화되기 한참 이전의 한국을 살아온 박완서의 글인지라 그가 토로하는 도시인으로서의 원죄감이라든지 개발과 보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읽는 이로 하여금 쉬이 낭만적인 전원생활과 같은 달콤한 환상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는 책 제목과 동일한 ‘잃어버린 여행가방’이라는 글로 시작한다. 여행 중 잃어버린 자신의 여행가방 속에 처박아 두었던 빨지 않은 속옷이며 양말이 누군가에게 꺼내어져 보였을 거라는 불

안감과 수치심에 대한 묘사는 ‘역시 박완서’라는 탄성을 자아낸다. 또 천주교 신자인 그녀가 대한민국 공식조문단으로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의 감회, 중국을 여행하면서 되짚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역시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녀는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난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작가 자신이 인간이기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인간적 위선 역시 적나라할 정도로 솔직하다.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번째 티베트 기행은 세상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이 닿아 있는 나라에 대한 종교적 감상과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이 뒤섞여 슬화되어 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행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어딘지 모르게 오지탐험가의 수기를 읽는 듯한 이야기까지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기행문이라고 불리는 글들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느껴진다.

세월과 함께 무르익어 가는 사람의 연륜이라는 다소 텅텅한 속내도 그녀 특유의 싱싱한 입담과 함께 하니 입맛을 돋우어주는 씹바귀 나물과도 같이 읽힌다. 앞으로도 박완서 씨가 건필하시길 기원한다. 📌



# 만물이 약동하는 3월에

제73기상전대 대령 염영경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른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 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3월

3월 초에는 날씨 변화가 많으나 중순 이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따뜻한 날이 점차 많아진다.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점차 올라가면서 포근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강수량은 평균 58mm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강설량은 3cm 줄어 들어 3월 말부터는 북부 산악지방을 제외하고는 눈을 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여 긴장이 완화되고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며, 안개발생 또한 증가하여 지상 및 항공 작전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봄을 시새워하는 황사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서너 차례 발생하며 주로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내륙의 고비사막 부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지역의 과다한 방목과 개간 작업으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황사 발생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황사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가급적 외

출은 삼가고 외출 후에는 식염수로 눈과 코를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황사는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시정을 악화시키는데, 이는 조종사에게 비행착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제트 항공기의 엔진부분에 공기 흡입시 황사 입자가 같이 유입되어 내부기관의 마찰증가로 인한 피스톤의 마모를 가져오기도 한다. 올해는 황사현상이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 희망의 3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 나오고,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도 생육(生育)을 개시한다는 '경칩'이 6일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만물이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춘분'이 21일이다.

춘분에서부터 약 20여 일이 일년 중 가장 기온 상승이 큰 때이다. 이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난춘(暖春)' 시기로 일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하다.

희망의 3월이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사이에 실려오는 봄소식으로, 양지바른 곳의 따뜻한 햇살로,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보자. ☀

독

자

의

소

리

〈화제의 공군인〉이 매우 흥미 있었습니다. 생각도 하기 힘든 일을 그것도 무료로 13년 간을 해왔다고 하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충주시 금가면 상병 구태훈

얼마 전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경품에 한 대학생이 당첨된 뉴스보도가 호기심을 자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우주력〉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국민적 자긍심 제고로 활력소임에는 틀림없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포항시 북구 김현희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번 걸리면 승진에서 탈락시킨다는 공기업 인사정책에 관한 보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호의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보면서 나 자신부터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을 경우 운전을 안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초전동 문장곤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를 읽었을 때, 예전에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큰 좌절을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던 그때 이 글을 읽었다면, 그런 영화를 봤다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천시 사천읍 병장 이성원

하루에 나는 얼마나 웃었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최근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없다. 그보다 화내고 슬퍼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마음으로 읽는 글〉을 읽으며 웃음 되찾기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는 2006년을 만들어 가고 싶다.

대구광역시 동구 진정화

〈공군소식〉 8비 ‘사랑의 야학’ 편을 읽고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 마치 고향 소식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랑의 야학으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시는 8비 초급장교 분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럽고 공군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기 시흥시 전기홍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2006. 3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 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독자 퀴즈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독자퀴즈 Quiz

트 리 고 소 올 찌 아 라 !

두 사진의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대를 찾아 독자퀴즈 업서에 표시하여 보내주세요.

## 2006년 3월호 독자퀴즈 문제



\* 사진설명 :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한 17비 여군 부사관단



※ 정답 업서 마감일 : 3월 20일까지

## 2006년 2월호 다른 그림 정답



## 2006년 2월호 다른 그림 당첨자

- 충주시 금가면 상병 구태훈
- 포항시 북구 김현희
- 진주시 초전동 문장곤
- 대구광역시 달서구 박병규
- 사천시 사천읍 병장 이성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하숙
- 대구광역시 동구 진정화
- 강원도 철원군 황순덕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병 홍성일
-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전기홍

###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minjkang@af.mil

국군기무사령부

(http://www.dsc.mil.kr)

간접/안보사범 및 테러범 신고상담 080-777-1113

# 치솔을 보니

방공포병사령부 중위 장 동 하

무딜 대로 무뎠져 잘 닦이지 않는  
치솔을 보니 아버지 생각난다  
오늘도 아버지 지난 밤 드신 약주 몇 잔  
힘겨우셨던지 겨우 아침 맞으신다  
당신께도 방금 막 포장 뜯은 치솔처럼  
뽀뽀하고 탕탕했던 젊은 시절 있었을 것이다  
독한 치약 속에 고개를 파묻고도  
물기 툭툭 털어 내면 금세 새것 되는,  
아무리 닦아도 쉬이 휘어지거나  
무뎠지지 않는, 꼳꼳한 자세로  
치솔통 한 자리 당당히 꿰차던  
그런 시절 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군들 헌 치솔 되어  
빨래터 때문은 셔츠 깃 비벼 빨고  
구두닦이통 구석에서 새까맣게 속태우는  
저량한 삶 꿈이나 꾸었으랴  
그래도 치솔은 치솔이다  
셔츠 깃을 비벼 빨든 빨래솔이 될 수 없고  
까만 속 또 태우며 구두 먼지 털다고  
구두솔이 될 수 없다  
치솔은 치솔이다

가족들 입가에 번질 하얀 미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 생각나  
무뎠진 치솔, 욕실 한 편 치솔 통에  
고이 모셔 놓는다



## 詩作 메모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울산 집에 다녀왔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을 고이게 만든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슴 속 한 구석을 몽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미워했던 아버지를 군에 와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많이 늘어버리신 아버지께 생신을 맞이하여 부끄럽게 한 마디 드립니다. '사랑한다고……'